

비보존 헬스케어, 오겟 모델로 김세정 발탁

비보존 헬스케어(대표이사 오동훈, 한재관)는 코스메틱 브랜드 오겟 모델로 가수 겸 배우 김세정을 발탁했다. 오겟은 비타민C 라인과 어성초 라인으로 구성된 코스메틱 브랜드다. 김세정은 오겟의 새 광고에서 '오겟, 민낯 케어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비타민C 라인, 어성초 라인을 소개한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오겟이 해외시장을 겨냥해 기획한 제품인 만큼 해외 팬덤이 탄탄한 김세정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대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

논는 자동차세, 尹은 안전속도 개편한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현행 50km/h → 개편 60km/h)

20대 대선 후보들이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 중 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이재명 "탄소 배출량 반영해 과세"
윤석열 "속도제한 신호체계 개편"
심상정 "전기차 1000만대 보급"
안철수 "2차 전지 등에 집중 투자"

이재명 후보는 자동차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놨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고가의 수입차보다 국산 승용차가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가 생겨,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하며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차, 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

대선후보 자동차 관련 대표 공약	
 이재명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개편 (배기량→가격·CO2 배출량) 공공기관 차량 전동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윤석열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50km→60km) 전기차 충전 요금 5년 동결 음주운전 면허 결정 기간 강화 (1년→3년)
 심상정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국내 전기차 1000만대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국가 핵심 사업으로 육성
 안철수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5 성장 전략, 2차전지, 수소 등에 집중 투자

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의 자동차세 개편 공약은 자동차세 형평성 문제 해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공공기관 운영 차량 전동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자동차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도심 속도 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이다. 윤 후보는 "안전속도 5030이 현재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속도제한을 60km/h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나 보조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생활권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제한속도를 30km/h로 각각 낮추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교통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해당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은 부재하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재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 제한이 있고, 신호 체계 개편도 없었다. 속도 제한을 좀 풀되 지능형 교통시스템만 완벽하면 보행자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음주운전자 면허 결정

기간 강화(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의 비중 확대, 법인차의 별도 번호판 부여를 통한 사적 이용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종합 경제 구상인 '그린 노믹스' 정책 안에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 보급이라는 자동차 관련 공약을 담았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자동차 총규모를 2000만 대 수준에서 묶고, 그 중 절반인 1000만 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조 원을 투자하고, 급속 충전시설을 10만 대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555 성장전략' 안에 자동차 관련 공약을 담았다.

안 후보는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콘텐츠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올 뉴 디펜더 110 P400 X 모델은 곳곳에 X 트립 고유의 강력한 오프로드 이미지를 더해 디자인을 차별화했다. LG전자의 공동 개발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IVI Pro가 탑재된 실내(아래 사진).

사진제공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랜드로버, '디펜더 110 P400 X' 사전계약 정교한 주행·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매력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로빈 폴젠)는 고성능 가솔린 오프로드 차량인 '올 뉴 디펜더 110 P400 X'의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 뉴 디펜더 110 P400 X는 최고 출력 400마력, 최대 토크 56.1kg.m를 발휘하는 신형 I6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1초 만에 도달한다.

신형 가솔린 엔진에는 첨단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배기가스 배출 저감을 실현했다. 또한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연속 가변 밸브 등 다양한 랜드로버의 최선 엔진 기술을 적용해 정교하고 다이내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

오프로드 성능도拔群이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2(Terrain Response@2)를 탑재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새로운 오프로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주행 조건에 따라 차고 높이를 조절하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최적의 트랙션 컨트롤을 보장하는 전자식 액티브 리어 랙킹 디퍼런셜 등 다양한 오프로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올 뉴 디펜더 110 P400 X 모델의 판매 가격은 1억 4117만 원(개소비세 포함)이다.

원성열 기자

NS홈쇼핑, 오늘 '63레스토랑 셰프 김치' 방송



NS홈쇼핑이 15일 오후 5시 10분 프리미엄 김치 '63레스토랑 셰프 김치' (사진)를 방송한다. 63레스토랑 파블리온, 터치더스카이, 백리향, 슈치쿠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한우사골육수, 100% 국내산 신선농산물을 기본 재료로 만들었다. 또 신선 천일염, 강원도 무, 창녕 마늘, 안동 생강, 신안 새우젓 등 셰프들이 전국에서 엄선한 재료를 담았다. 총 10kg으로 8kg은 바로 담긴 새김치, 2kg은 일주일가량 숙성한 김치로 구성했다. 방송 중 ARS 자동 주문시 4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NS홈쇼핑 모바일 앱에서 '깜짝타임 찬스' 15% 할인 쿠폰 혜택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롯데호텔, 프리미엄 온라인 숍 '이숍' 오픈

롯데호텔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호텔 시그니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프리미엄 온라인 숍 '롯데호텔 이숍'을 오픈했다.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 롯데호텔 서울, 월드, 제주, 울산, 부산 등 총 7개 계열 호텔에서 이용 또는 구매 가능한 1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롯데호텔 자체 침구 브랜드 해운, 시그니엘 호텔 로비 향을 느낄 수 있는 시그니엘 디퓨저 등의 인기 PB 상품도 만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5~2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드라이브 스루, 푸드, 라이프 스타일, 프리미엄 베딩, 레스토랑 이용권 등 사용자 직관적인 5개의 카테고리 분류로 운영한다. 제품 수령은 매장 픽업, 택배 배송,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중 선택할 수 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hy, "한층 강화된 새로운 율" 천연물 꾸지뽕잎 추출물 적용



hy의 위 건강 발효 유 '헬리코박터 프로제트 율(이더 율)'이 더 강력해진다.

14일 자체 개발한 천연물 소재 꾸지뽕잎 추출물을 적용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다. 2000년 출시 이후 제품 개선만 열 번째다. 한층 강화된 율을 통해 프리미엄 발효유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율에는 6년 간 연구 끝에 개발한 차세대 위 건강 소재인 꾸지뽕잎 추출물 50mg을 담았다. 발효효상, 녹용에 이은 세 번째 천연물 소재로 최근 상용화에 성공했다.

신상의 hy M&S부문장은 "위 건강 발효유의 기준인 국민 브랜드 율에 특허 소재 꾸지뽕잎 추출물을 첨가해 프리미엄 발효유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율은 새 브랜드 모델로 배우 조승우(사진)를 발탁했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조승우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제품력을 인정받아온 율의 이미지가 부합해 모델로 선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가볍고 감각적인 아웃도어룩" K2, 수지 화보 공개

K2, MZ세대 겨냥 스타일리시한 봄 하이킹룩 눈길 아노락 바람막이 자켓·슬링백·조깅스 등 선보여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전속모델 수지와 함께 한 2022 봄·여름 시즌 아웃도어 화보를 공개했다. '영 아웃도어 챌린저(Young Outdoor Challenger)' 테마의 화보는 자유롭고 감각적인 스타일의 아웃도어룩을 담고 있다.

화보 속 수지는 따뜻한 햇살 아래 아노락 바람막이 자켓과 슬림하고 신축성이 뛰어난 등산 레깅스, 조거팬츠 등을 코디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봄 하이킹룩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K2는 2022 S/S(봄·여름) 컬렉션을 통해 퍼포먼스 중심의 고기능성 상품군 뿐 아니라 아노락 바람막이 자켓, 슬링백 등 MZ세대와 영아웃도어를 위한 제품 및 용품군을 확대해 선보인다.

특히 가볍고 편안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젊은 고객층을 겨냥해 등산 레깅스, 조거팬츠, 조거와 레깅스를 결합한 조깅스 등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을 갖춘 팬츠류를 강화했다. 핑크, 화이트, 옐로 등 산뜻한 색상을 적용한 하이킹화과 워킹화도 선보일 예정이다.

친환경 상품군인 '에코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이며 다양한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를 접목한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K2 상품기획부 이양영 이사는 "이번 봄·여름 시즌에는 뛰어난 기능성의 전문 제품군 뿐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하이킹 제품군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라며 "세련된 스타일과 기능성을 갖춘 신제품을 통해 젊은층 공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수지수지하네", K2가 전속모델 수지와 함께 SS시즌 아웃도어 화보를 공개했다. 스타일리시한 봄 하이킹룩을 선보이고 있는 수지의 모습에서 봄소식이 물씬 느껴진다. 사진제공 | K2

